

회원사 동정

원자력의학원

국내기술 개발 임차료용 동위원소 생산장치 사이클로트론 해외서 호평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암치료용 동위원소 생산 등에 쓸 수 있는 사이클로트론(양성자 가속기)이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21일 원자력의학원(원장 이수용)에 따르면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2년 전 자체 개발한 사이클로트론 KIRAMS-13의 기술이전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칠레,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콜롬비아, 페루 등 개도국은 기술이전을 희망하고 있고 이 가운데 칠레와 베트남, 말레이시아와의 기술 이전은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국가와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칠레 등 각국의 기술진들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원을 받아 내년 부터 우리나라에 1년씩 기술훈련을 받기 위해 입국할 예정이다.

사이클로트론은 양전자단층 촬영장치에 사용하는 방

사성 동위원소 생산장치로, 개도국들은 국내에서 개발한 장비가 4계절이 뚜렷한 기후환경에서도 제대로 운용되고 있다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사이클로트론은 대당 가격이 30억원에 이르는 고가 장비로 연간 유지 보수비만 2억원에 달해 기술 수출이 이뤄질 경우, 외화획득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원자력 의학원 채종서 박사는 올해 국제원자력기구 자문역으로 선임돼 베트남과 태국에 사이클로트론 기술자문을 해주기도 했다.

한편, 원자력의학원은 사이클로트론 국산화 개발에 힘입어 전북 정읍에 건설중인 첨단방사선연구센터에 30MeV급 연구용 KIRAMS-30 사이클로트론을 건설할 예정이다.

-디지털타임스, 2004.12.22-

원광대학교

방사선영상과학연구소 개소

차세대 방사선 영상과학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연구소가 전북 익산시 소재 원광대학교(총장 정갑원)에 문을 열었다.

원광대는 10일 “과학기술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의 하나로 익산방사선영상과학연구소를 개소했다”며 “이 연구소는 앞으로 차세대 방사선 영상과학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소에는 윤권하(원광대의과대학 방사선과 교수)소장을 비롯 모두 38명이 연구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265억원을 지원받아

‘나노급 방사선 의료영상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에 나선다. 이 연구 과제를 세분화하면 ▲차세대 X-선, 감마선과 전자빔 광원 개발 ▲나노(nano·10억분의 1)급 광학소자 개발 ▲방사선 영상장치 연구 개발 ▲나노 방사선 입자와 분자 조영 영상기술 개발 등이다.

원광대는 내년 교내에 1300여㎡의 부지를 마련, 연건평 3300여㎡ 3층 규모로 이 연구소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세계일보, 2004.12.10-